

학령전교육법 통과, 내년 '6.1'부터 시행

—유치원은 소학교화 교육 방식을 취하면 안된다



장춘시록원구조선족소학교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배우며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 아이들은 놀이와 함께 몸도 마음도 함께 크면서 팀워크를 배우고 창의력을 키운다. / 장춘시록원구조선족소학교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12차 회의는 11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학령전교육법>을 표결로 통과했다. 이 법은 총 9장 85조로 이루어졌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년간 경제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나라 학령전교육 자원의 투

입, 학령전 아동 유치원 입학 비율, 유치원 교직원 대오 전반적 자질이 뚜렷하게 향상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는 학령전교육 발전 경험을 체계적으로 총결하고 장기적인 실천을 거쳐 검증받은 성숙된 수법을 법률 규정으로 상승시켜 우리 나라 학령전교육 사업 개혁 발전을

가일층 확인하고 공고히 하고 인솔하며 법에 따라 유익한 경험 성과를 보급하고 확장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공익과 보편적 혜택 기초를 견지하면서 학령전교육법은 학령전교육 발전은 정부의 주도를 견지하고 정부의 설립을 위주로 하며 보편 혜택성 학

령전교육 자원을 힘써 발전시킨다고 제기했다.

학령전교육법은 '학령전 아동'이라는 장을 전문적으로 설치하여 학령전 아동의 권의 보호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규범을 했는바 학령전 아동은 생명 안전과 심신건강이 존중받고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을 권리, 법에 따라 평등하게 학령전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령전교육법은 유치원은 보육과 교육이 상호 결합된 원칙을 견지하면서 모든 학령전 아동은 상대로 개체 차이를 주목하면서 좋은 습관 양성을 중시하고 적합한 생활과 활동 환경을 창조하여 학령전 아동의 심신이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전교육 '소학교화' 문제에 대해 학령전교육법은 유치원은 소학교화 교육 방식을 취하면 안된다고 명확히 했고 동시에 소학교는 수업 표준에 따라 무기초 교수를 견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학령전교육법은 정부 재정 투입을 증가하고 보육 교육 활동을 과학적으로 실시하며 유치원 주체 책임을 강화하는 등 방면에서 규정을 했으며 불법행위의 법률 책임을 규정했다. 관련 부문, 단위와 개인은 사상 인식을 가일층 향상시키고 법률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학령전교육법을 실제적인 곳에 시달하고 기층에 착지시켜야 한다.

/인민넷 - 조문판

[학령전교육법 해독]

공익 보편 혜택은 공짜를 의미하는가?

교육부는 11월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새로 출범한 학령전교육법을 해독했다. 교육부 해당 책임자는 학령전교육법은 학령전교육의 공익 보편 혜택 속성을 명확히 하고 학령전교육 보장 기제를 진일보 견지했다고 소개했다.

교육부 기초교육사 해당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학령전교육법은 학령전교육은 정부 투자를 위주로 하고 가정에서 교육 원가를 합리적으로 부담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제를 규정했는바 학령전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 재정 보조 경

비의 부담 기제를 명확히 하고 학령전교육의 보장 기제를 진일보 견지했다.

네티즌들은 '교육법의 출범은 유치원이 국가담으로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고 묻는데 공익 보편 혜택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공짜를 의미할까?

전문가의 해독을 들어보자.

천진시범대학 교수 랑혜연: '공익 보편 혜택'이란 정부에서 학령전교육 투입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학부모가 합리적인 비용을 통해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은 '공짜'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학령전교육 재정투자를 늘여 학령전 어린이 가정의 교육 원가를 점차 절감하는 것이다.

물론 학령전교육법은 조건이 허락되는 지역의 무료 학령전교육 실시를 격려하지만 각지 재정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이는 강제적 요구 사항이 아니며 무조건 공짜인 것이 아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우리 나라 학령전교육 보편 혜택성 비율은 이미 90.8%에 달했다. 즉 90.8%의 유아 가정에서 매

우 저렴한 등록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학령전교육법은 학령전교육이 정부를 위주로 운영되지만 이로써 유치원이 '국가담'으로 되었음을 의미하지 않고 공립 유치원이든 사립 유치원이든 학령전 아동에게 보편 혜택성의 학령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실제로 국가 재정의 투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정부가 책임을 진다.

/인민넷 - 조문판

일류학과 순위, 우리 성 6개 대학 입선

연변대학 1개 학과

11월 11일, 고등교육평가전문기구 소프트컴퍼니는 2024 '소프트컴퍼니 세계 일류학과 순위'를 공식 발표했다.

우리 성 6개 대학의 52개 학과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입선된 학과의 수량으로 볼 때: 길림대학이 33개 학과로 우리 성 1위 차지

- 동북사범대학 10개 학과
- 길림농업대학 4개 학과
- 동북전력대학 3개 학과
- 길림사범대학 1개 학과

연변대학 1개 학과
구체적인 학과 순위의 차원에서 볼 때:

길림대학 의기과학이 세계 9위를 차지해 앞순위 10에 들었다.

이 밖에 길림대학의 7개 학과가 세계 앞 순위 50에 진입했다. 이 들로는 아래와 같다.

- 화학 (20위)
- 야금공학 (24위)
- 나노과학및기술 (27위)
- 화학공학 (31위)
- 재료과학및공학 (42위)
- 방직과학및공학 (42위)
- 원격탐사기술 (43위)

/길림일보

2025년 대졸생 1,222만명으로 예측

동기 대비 43만명 증가

14일,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연합으로 사업회를 소집해 2025기 대학교 졸업생 취업 창업 장려 사업을 잘할 것을 배려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5기 전국 보통대학교 졸업생 규모는 1,22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동기

대비 43만명 증가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각지 각 대학교들에서 '2025기 전국 보통대학교 졸업생 취업 창업 촉진과 서비스 체계 건설 행동'을 실시하도록 배려했다.

소개에 따르면 9월부터 각지 각 대학교는 채용 활동 5.5만회를 개최하여 일터 정보 1,093만개를 제공했다.

/인민넷

학생들 학교 농장서 벼풍작 희열 만끽

랴오닝성 룽양시조선족학교(랴오닝시제9중학교 소학부) 학생들은 지난 10월 31일, 학교 '홍석류농장'에서 한전벼 가을걷이 체험을 하며 풍작의 희열을 만끽했다.

김성철 학교 서기 겸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벼가을 방법과 벼단 무기 시범을 보였다.

학생들은 교사들의 지도하에 낮을 들고 질서 있게 벼가을을 체험했고 직접 가꾼 벼를 정미한 후 식당에서 맛볼 수 있다는 소식이 환호성을 질렀다.

/료닝신문

이날 룽양시라지오텔레비죤방송국 취재진은 학교를 찾아 민족복장을 차려입은 학생들의 가을걷이 전반 체험 과정을 특별취재했다.

이 학교에서는 4년전부터 교정내 700여평방미터의 집초밭을 개간하여 '학생로동체험기지'로 만들고 한전벼를 재배했다.

김성철 교장은 "올봄에는 기존의 면적에 400여평방미터를 추가하고 부대시설도 새로 갖추었다. 올해는 직접 가꾼 벼를 정미하여 식당에서 맛볼 수 있다는 소식이 환호성을 질렀다."

전성 교정 과학 보급 연극 경연대회 펼쳐



길림성 제1회 교정 과학 보급 연극 경연대회 결승전 무대의 한 장면

우리 성 제1회 교정 과학 보급 연극 경연대회 결승전 및 길림성 과학기술관 '과학 보급 클라우드 씨클' 제5회 씨클 풍채 시리즈 활동 표창대회가 일전 장춘에서 있었다.

경연은 '주변에서 과학을 발견하며 꿈에 경계를 두지 않는다'를 주제로 과학기술관과 학교가 협력해 과학 보급 연극의 형식으로 과학 보급 연극의 형식으로 과학의 리념을 전파하고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취미와 열정을 불러 일으켰다.

경연에는 성내 9개 지역의 43개 학교가 참여해 47부의 작품을 내놓은 가운데 선발을 거쳐 15부의 작품이 결승전에 들었다.

결승전 현장에서 작품의 생동한 스토리, 선수들의 정채로운 표현은 수시로 터지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매하구시해방중심학교 대표팀의 작품 <들으라, 지역의 소리>

/길림일보

이런 인원 학령전교육 업종 종사 금지

11월 8일, 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2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학령전교육법>을 표결로 통과했다. 이 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학령전교육법에서는 유치원 교사나 기타 직원이 아동을 대하는 세가지 정형이 있을 경우 처벌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소한다고 명확히 했다.

첫째, 아동을 체벌하거나 변칙적으로 체벌한 경우;

둘째, 아동을 차별, 모욕, 학대, 성적 침해한 경우;

셋째, 직업 도덕규범을 위반하게

나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손상시켜 불량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이다.

또한 유치원에서 원장, 교사, 보육사, 위생보건 인원 및 기타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교육, 공안 등 관련 부문에 지원자에게 학대, 성적 침해, 성희롱, 유괴, 폭력상해, 마약, 도박 등 불법범죄 기록이 있는지 조회해야 하며 상술한 행위 기록이 있거나 알콜 중독 또는 교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등 기타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발견되면 채용할 수 없다. /인민넷 - 조문판

유치원 입학률 고소득 국가의 평균 수준에

교육부가 11월 11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교육부 기초교육사 해당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유치원수는 27.4만 개이고 유치원생수는 4,093만 명이다. 학령전 3년의 순 유치원 입학률은 91.1%로 2012년에 비해 26.6% 포인트 증가하여 세계 고소득 국가의 평균 수준에 도달했다. 2023년 전국 보편 혜택성 유치원은 23.6만개이고 유치원생수는 3,717만명, 보편 혜택성 유치원의 보급률은 90.8%에 달하여 2016년에 비해 23.5% 포인트 향상되었다. /인민넷 - 조문판

중앙재정은 취학전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 특별기금을 총 2,460억원 투입하여 각 지역에서 재정 투입을 진일보 확대하도록 이끌었다. 2023년 국가 재정성 교육 경비 지출에서 취학전교육 비율이 6.2%에 달하여 2012년에 비해 3% 포인트 향상되었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각급 재정은 루계로 937억원을 투입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 고아와 장애어린이가 7,500여만명이 보편 혜택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인민넷 - 조문판

아동과 학생 용품 관련 국가표준 193개 제정 발표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이미 아동과 학생 용품 관련 국가표준 193개를 제정하고 발표했는데 방직복장, 장난감, 가구, 유아차, 학생 용품 등 분야를 망라한다.

<학생 용품의 안전 통용 요구> 강제성 국가표준은 만 14세 이하(14세 포함) 학생 용품의 요구, 시험 방법, 표시를 규정하고 '접촉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중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한정량', '채색 진흙중 유리 폼알데하이드의 한정량' 등 유독, 유해 화학물질의 한정량 요구를 엄격히 규정했다.

<아동 청소년 학용품 근시 예방통제 위생 요구> 강제성 국가표준은 근시 예방, 통제와 관련된 교과서, 교육 보조자료, 수업장부책, 시험지, 학령전 아동 학습도서 및 일반교실 조광기구, 학습용 책상등과 수업용 멀티미디어 등 아동 청소년 학용품의 위생 요구를 규정했는데 종이 밝기, 인쇄 품질, 글씨체 크기, 조명의 색깔과 온도 등 기술 요구 및 검사 방법을 망라한다.

<영유아 및 아동용 종이제품 기본 안전기술 규범> 강제성 국가표준은 유아용 지저귀, 영유아 및 아동용 휴

지, 화장지, 물티슈, 문화용지와 종이판, 종이책 등 제품의 기본 안전 요구를 규정했는데 중금속, 이동원소, 이동성 형광물질, 아크릴아미드, 폼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메탄올, 벤젠, 메틸알데하이드, 메틸렌렌 등)을 엄격히 한정했다. 이 규범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학교 디지털교재 메타데이터> 등 3가지 국가표준은 중소학교 디지털교재 메타데이터 기본 구조, 출판 절차, 품질 요소 및 검사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기하고 디지털 출판 시스

템과 디지털 교육 자원 공공 서비스 체계의 맞물림을 중시했는바 중소학교 디지털 교재를 규범화하고 능률적으로 출판,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능이동단말기 미성년자 보호 통용 규범> 국가표준은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미성년자의 심신건강 발전의 법칙과 특성에 맞추어 휴대용, 태블릿 PC 등 기능이동단말기가 갖추어야 할 근거리 보호, 원격 보호 기술 요구와 테스트 방법을 규정했다. /인민넷 - 조문판